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음 6월 16일) 제16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 288-9700



‘절도있게’

16일 전북도청 앞 도로에서 1,700여명의 태권도인이 함께하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진행된 가운데 참석 한 초등학생들이 절도 있는 품새를 선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도내 지자체 지역특구 선정 ‘말로만’

도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구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정부가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역특구사업을 선정하고 있지만 도내 지역특구는 이번 선정에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특구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라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 지역 특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특구 지정은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다.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역 브랜드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건폐율, 용적을 완화 등 58개 법

올해에 선정된 전북 지역특구는 없어
완주포도산업 등 성과 저조해 지정 해제
특구 여러개 지정 인해 사업 성공률 낮아

를 129개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사업자와 정부 사업신청 공모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지난 2004년 6개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8개 신규지정 등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6개 기초단체에서 178개 특구가 지정됐다.
전북은 11개 지자체에 향토자원 7개, 관광레포츠 4개, 산업연구 3개, 의료복지 2개 등 총 16개 특구가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청은 18일에도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등 10개 특구를 우수 특구로 선정했고 최고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각각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문제는 도내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특구 지정이 선언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완주포도주산업특구는 지난 2007년 9월 향토자원 특구로 지정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올해 지정 해제 됐다.
지난 2013년 12월 지정된 익산 양한방의료연구단지특구 역시 올해 지정 해제 됐다.
지역특구 지정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여러 유형에 걸쳐 지정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소홀해 질수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예컨대 부안군의 경우 향토자원, 관광 등 3개 부분 특구에 지정 돼 부안군만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러개 특구 지정으로 인해 경쟁력이나 사업 추진시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한 1개 지자체에서 2~3개의 중복 특구를 운영할 경우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따내기도 쉽지 않을수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 지자체에 지역특구 지정이 많으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참여 유도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특구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성과를 낼 수 있는 특구 지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광영 기자

자유학기제 효과 ‘톡톡’

연습 5일만에 선수로 입단

자유학기제를 통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과 연습 5일 만에 관련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학생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그 결과 사격선수로까지 입단하게 된 화제의 주인공은 류연주 임실동중 1학년 학생이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실동중학교(교장 양기수)는 지난해 2학기 자유학기 희망학교로 지정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진로직업 체험 가운데 하나인 입실군 소재 전북도종합사격장에서 클레이 사격과 공기권총 체험이 실시됐다.
1학년 참가자 50여 명 중 류 학생의 점수가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을 체험이 모두 끝난 후에 알게 됐다.
사격 체험에서 얻은 높은 점수에 본인도 물론, 친구들과 사격 연맹 관계자들이 놀라며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류 양은 사격 체험 후 사격에 관심이 생겼고 부모님과 함께 사격장 관계자를 만났던 결과 무한한 능력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사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격장에서 연습을 시작한 지 5일 만인 지난해 11월 14일 ‘제15회 전북도교육감배’ 학생 사격 대회에 출전해 3위에 입상하게 된다.
또한 같은 날 열린 ‘2015 전북 학생체육대회’에서 공기권총 분야에서 여중부 개인 당당히 2위에 입상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 결과, 류 양은 ‘2016 전국소년체전 전북 대표 선수로 선발돼 출전, 최근 열린 전남도지사배, 충무기 사격대회 등에서 평균 92%의 득점율을 유지하며 전북의 자랑스런 사격 꿈나무로 성장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성을 찾아 나갈 것으로 기대된 새로운 꿈을 향해 열심히 정진해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류연주양(사진 가운데).

임실 동중 류연주양
각종 사격대회에 출전
‘사격 꿈나무’로 등극

부안 하서중 서광원군
로봇공학자 꿈 찾기로

가는 좋은 사례는 또 있다.
1학기 운영 사례로 부안 하서중 학교(교장 김영상)는 지난 5월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으로 원광대학교 ‘로봇카 체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는 해당 학생들과 재미있는 체험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1학년 서광원 학생은 ‘차기 세상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로봇공학자’라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농어촌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좋은 사례인 군산교육지원청 관내 ‘나포, 임피, 대성 3개교 연합 진로체험’에서 대성중학교(교장 김창기)는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 인물백과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와 ‘나의 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로 영상 UCC 만들기를 실시해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교과 속에서 진로를 찾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꿈과 적성을 찾아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시원한 여름 휴가
진안군원에서 느껴보세요

제8회 동향면 수박축제
2016. 8. 6(토) ~ 8. 7(일) 2일간
진안군 동향면 동향체련공원